요즘 어떠세요?

李晩熹 회우와 茶 한잔 나누며

개인택시 사업으로 제2인생 열어

"작년 10월 하순쯤인데 그날은 좀 피곤해서 일찍 일을 마치고 차 안을 살펴보니 손님이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즉시 대림파출소에 신고를 했죠. 가방 속을 확인하니까 현금 270만원과 수표, 그날의 영업전표들이 들어 있었어요. 새벽 3시쯤에 가방 주인이 나타나서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도 있다면서 너무 고마워 하드라구요." 개인택시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연 이만희 회우가 그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겪은 얘기 중의 하나다. 그런가 하면 작년 설날 고려대 앞에서 은평구 시립병원 앞까지 간 한 청년은 지금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지갑을 도서관에 두고 왔다며 가방을 맡기고는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가방에는 낡은 T셔츠 하나와 쓸모없는 종이만 잔뜩 들어 있었다고 허탈해 한다. 또 택시요금을 은행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는 등 세상에는 별 별 사람들이 많다고 그 동안 겪은 일들을 들려준다.

과거 보다 현재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

李회우는 그러나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기사는 그 목적을 충족시켜 주고 돈을 받으니까 서로가 만족스러운 일"이라면서 "승객이 만족하면 기사 입장에서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도 피력한다.

이만희 회우가 개인택시 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2월부터다. 올해로 꼭 2년이 됐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76년 7월 대구방송국 김천출장소에 입사해 KBS와 인연을 맺은 李회우는 안동방송국과 대구방송총국을 거쳐 지난 91년부터 본사 안전관리실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99년 6월 명예퇴직했다. 李회우는 개인택시 사업을 하게된 동기에대해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창업박람회도 여러군데 다녀보고 각종 체인점도 검토해 봤지만 모든 업종이 투자비용에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고 더욱이 나이가 있는 만큼 만약 실패한다면 영원히 끝난다는 두려움이 앞섰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창업중에 개인택시 사업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준비를 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자격 요건 가운데 자신이 이미 취득한 개별용달 면허가 3년 이상이어서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투자비용도 거의 손실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 李회우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내 인생을 백지 위에 다시 그려나간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다정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

서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李회우는 처음에는 시내 곳곳의 길을 잘 몰라 당황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요금 시비도 잦았다면서 택시기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승객이 과거에 냈다고 주장하는 요금만 받고 해결하는 요령도 생겼다고 털어 놓는다.

요즘은 서울 시내의 지리를 거의 파악하고 있고 네비게이션도 장착돼 있어서 빠른 길을 선택해 승객을 태워다 주면 요금도 적게 나오고 시간도 절약돼 오히려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한다. 곳곳에서 빚어지는 교통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물음에 李회우는 "승객이나 기사 모두에게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일중의 하나"라면서 승객과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애쓰고 정말 바쁜 승객에게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택시 문화도 일본의 MK택시처럼 이웃집 아저씨같이 다정하고 친절해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李회우는 힘주어 말한다.

사양길 택시사업 대책 서둘러야

일주일에 이틀 쉬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한다는 李 회우는 승객과 기사 사이에는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세상사 얘기를 털어 놓는다면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우리 사회현상 전반에대한 불만으로 꽉차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택시 기사들 역시 예전에는 집도 장만하고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한다고 경기침체현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만희 회우는 특히 택시의 과잉공급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질적인 향상, 대리 운전의 성행, 찜질방과 대중사우나의 증가 등으로 택시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의 대책이 아쉽다고 말한다.

글: 윤 기 로 /사진: 이 종 문

방송비평

PD의 연출영역과 책임

안 평 선 회우
(사·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열린음악회
방송 : 2.4(일)

라이브 스타 이승환이 환호와 열광속에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18년동안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지 못하다가 처음초청에 감사하다"는 그의 말은 의아스러웠다.

▲열린음악회 충북공연
방송:2.11(일)
PD:김충 연출:한경천

공연의 목표는 무대와 관객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것이기에 관객석 인서트도 절대요소이다. 대체적으로 그룹 샷 중심이지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포인트일 것이다. 이날 한 여성관객은 다섯 차례 비슷한 원 샷으로 소개되었다.

일반 관객인지 특정인물인지? 연출의 플랜인지 카메라의 선택인지?

▲가요무대
〈일자일루〉(一字一淚)
방송:2.5(월) PD:강영원
MC:전인석 자문:김점도 김진성
연출:김승우

최근 들어 이 시간에 진귀한 곡들이 선곡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한다.

젊은 가수들이 부르지만 곡 해석에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손인호 노래나 손석우곡은 슬픈 분위기라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백남봉(나는 울었네) 강민주(사랑했는데)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으로 들렸다.

'일자일루'는 백년설이 '유랑극단'(1939.1)으로 데뷔와 동시에 크게 히트하고, '두견화사랑'으로 화류계 여성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그 해 12월에 발매하여 역시 청춘남녀의 가슴을 설레게한 연가이다.

당시는 모든 사연을 편지로 전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정서한이 절대적인 표현수단이었다.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자니 한 글자마다 눈물 한방울씩이 떨어지고, 주소도 모르는 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보낼 길을 몰라서 붓대를 멈추고 하늘가 저 먼곳에 꿈을 보낸다는 애절한 사연. 광복직전까지도 유행했던 백년설의 초기 힛트곡을 납백송이 원판처럼 재연했다.

'검은 상처의 부르스'는 1963년 박춘석 편곡으로 '김치캣츠'란 여성 듀엣이 취입하여 동아방송(DBS)이 거의 독점적으로 전파시켰는데, 44년 전의 화음이지만 지금 들어도 매혹적이다.

'작품하나'의 하모니가 좋았다. '다방의 푸른꿈'은 난곡인데도 문채령(신인급?)이 리메이크 수준으로 개성있게 소화했다.

▲가요무대
〈작사.작곡가 콤비시대〉
방송:2.12(월) PD연출:강영원
자문:김점도 원형걸 MC:전인석

우리대중가요 초창기부터 작사, 작곡, 가수가 콤비를 이루어 가요곡들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취향과 호흡관계도 있었지만, 레코드사 전속관계로 자연히 그렇게 되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정두수-박춘석, 한산도-백영호, 전우-라규호, 하중희-김인배, 양인자-김희갑, 정은이-남국인 여섯 콤비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힛트 곡들이어서 선곡구성이 포만감을 주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오류를 남기고 말았다.

정두수-박춘석 자막에 사진은 한산도-백영호였다. 작고한 분이나 병상중이거나 활동중인 작가에게나 도리킬 수 없는 실례이다.

시청자들도 의아했을 것이고, 기획에서 방송까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이해 할 수 없는 방송사고이다.

▲설 특집 빅쇼2007
방송:2.19(월) MC:조영남
PD:박태호 연출:유찬욱 이상용
출연:하춘화 최진희 주현미

편곡이 리듬을 절제하고 간결한 편성으로 가창자의 개성을 촉발시키는 프리템포로 진행되었는데, 가창은 상시적인 창법으로 편곡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느낌을 주었고, 마지막 라운드 본인 힛트곡 모음에서 열기를 올렸다. 의상이 화려한 빅쇼이지만 선곡과 주제가 분명치 않고 흐름도 유려하지 않은 loose한 long show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007년 3월 1일 제 59 호

KBS 社友會報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 扶 相 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김은구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팩스 (02)3210-1449

金銀九회우 10대 회장으로 추대

2007년 정기총회 : 차기 회장에 김수웅

"힘있는 사우회 만들터" 김회장 다짐

KBS 사우회는 2월 23일 낮 11시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설립 이래 최대 4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07년 정기 총회를 열고 김은구 부회장을 제 10대 사우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총회는 회장 후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김수웅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자리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총회 위임에 따라 신임회장이 부회장 5명, 그리고 회장단이 16명의 이사를 2월 28일 선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힘있는 사우회 구현에 힘쏟겠다"고 사우회 운영방침을 밝혔다.(3면 취임사 참조) 이날 총회는 '06년 수지결산(안)과 작년 수준의 2억원 규모 '07년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 시켰다.

IBC 로비 스탠딩부페 자리에서 정연주 KBS사장은 "사우회 발전과 활성화에 KBS가 많은 뒷받침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건강 검진 패키지를 본사직원과 똑같이 50% 수준의 가격(35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인관 2대회장 별세

원로회우 이인관 2대회장이 2월 23일 반년전의 낙상 치료중 별세했다. 향년 93세, 사우회 최고령 회우이다. 고인은 1937년 조선방송협회 기술부에 입사한 이래 해방후 KBS와 공사의 이사로 근무할 때까지 한국방송의 기술을 키우고 지켜온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이다. 고인은 1950년 공보처기감으로 승진했으며 1967년 녹조소성훈장 등 4차례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1년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다.

유족으로는 1남 4녀

김철수 KBSi 신임회장 선임

김철수 전 KBS디지털미디어센터장이 2월 9일 제4대 KBSi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철수 사장(53세)은 1981년 KBS에 입사해 제주 총국 제작부장, TV1국 차장, 위성방송국 부주간, 미디어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회장 / 金銀九

▼ 부회장 명단

金聖培 (69/회보편집인)

朴庸植 (65/전 경영본부장)

徐廷元 (64/전 기술본부장)

李相旭 (61/전 라디오본부장)

鄭善彦 (65/전 아트비전사장)

▼ 감사 명단

李一魯 (67/전 기술본부장)

李長椿 (66/전 부회장)

▼ 신임이사 명단

방송 / 남승자, 윤기로, 이세진
이 휘, 홍금표, 홍태희
기술 / 구본출, 김광일, 김영호
김진평, 정운성
경영 / 권유호, 이광수, 이태수
정종판, 최덕용

※가나다 순

회비내신분

2002년~2003년/ 이정헌
2004년~2005년/ 한중광 이정헌
2006년/ 김복영 박준규 서 승 송정의 유수호 유원길 이상엽 이정헌 정도영(경영) 최홍목 한중광 홍금표
2007년/ 강명수 고범중 고현규 공정표 권중훈 권혁부 권혁태 김광모 김기욱 김기철 김기후 김대영 김덕조 김명재 김무환 김범배 김병원 김선기 김선옥 김선원 김성태 김성현 김수부 김수호 김승열 김신의 김영철 김용한 김윤곤 김재철 김정규 김정숙 김진관 김진옥 김철민 김헌식 김형태 남봉희 노기환 노재준 노준식 류한평 문무광 문종철 박광식 박경환 박규상 박동영 박만식 박명수(사) 박영길 박영옥 박영웅 박종권 박중흠 박찬숙 박현기 방경식 배진수 백일기 백종식 서권섭 서일봉 손소진 손무열 송경섭 송대선 송병현 송정의 신정호 안경은 안병율 예장기 오대환 오영관 오영윤 오이열 오정탁 오창현 우달수 유병민 유원길 윤공보 윤덕원 윤재홍 이광구 이광옥 이금수 이기창 이진수 이만희 이문수 이선배 이승의 이원규 이원일 이일로 이재균 이재봉 이재석 이정헌 이종일 이준일 이진선 이해균 이태오 임채기 장종덕 장정훈 전영우 전의섭 정건일 정도영(경영) 정두진 정상현 정종진 정회준 조대제 조세동 조원석 조탁래 지진웅 지희하 채규화 채수로 채철수 최신이 최평규 최홍목 한강수 한동수 한동화 한석정 허만채 허상율 홍갑준 홍금표 황봉구 황은수 황철이
2008년/ 김선기 김승열 노재준 송경섭 예장기 유원길 조탁래

(07년 1월 19일~07년 2월 16일 회비접수분)

송금계좌 :128-20-220610(제일은행) / 010579-01-000329(우체국)

'07년 회원수첩 4월 배포

사우회 사무국은 'KBS사우회 2007' 회원 수첩을 부득이 4월중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회원수첩은 새 집행부 명단과 1~2월에 가입한 100여명의 신입회원을 모두 수록하기 위해 예년보다 늦게 발행하게 되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문화산책> ⑰

이 의 춘

일본 天皇의 성경공부

올해 정초 신사를 찾아 세배를 올린 일본인이 무려 9백만명을 돌파했다. 한 사람의 사이센(賽錢:신사에 참배할 때 바치는 돈)을 100엔으로 계산하면 9억엔이 된다. 보통 1000엔, 많을 땐 수만엔을 내놓는 것을 감안하면. 신사의 수입이 적어도 100억엔을 넘었을 것 같다. 모리(森喜朗)씨가 총리 재임 중에「일본은 신국(神國)이다」고 발언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일본사람은 거의가 자신이 신도(神道)신자라고 생각한다.

패전 이후 절대권력으로 일본을 통치한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일본을 기독교국가로 개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신도(神道)의 중심이자 상징인 천황을 먼저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한다. 신도에 대한 맥아더의 생각은 최악이었다. 1945년 12월 15일 맥아더는「정부에 의한 국가신도 및 신사신도의 보호와 지원, 보전, 감독, 그리고 홍포(弘布)의 폐지」를 지시한 「신도지령」을 공포했다. 신도 파괴가 목적이었다.

첫 번째 실천과제로 등장한 것이 군국주의의 버팀목이었던 야수쿠니신사(靖國神社)를 없애는 것이었다. 참모진 가운데 야수쿠니신사를 소각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방안을 검토시켰다. 소각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후폭풍 우려를 감안하여 소각을 없었던 일로 하고 말았다. 야수쿠니 소각이 좌절되자 맥아더는 성경책 보급과 선교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미국의 기독교단체에 일본성경 보내기 운동 전개를 종용했다. 재임 중에 약 3천만권의 성경이 일본에 배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빌리그래함 목사에게 대중전도집회를 열도록 해주었다. 미국 기독교선교단체에 선교사 파견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본정부가 전쟁 중에 기독교 선교사를 추방했기 때문에 패전 당시 선교사는 거의 없었다.

1950년까지 5년간 일본에 입국한 선교사는 개신교 1,165명에 가톨릭 1,083명 도합 3,180명에 달했다. 물량공세처럼 되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오히려「신앙의 자유」가 유사종교의 온상으로 역이용되었다. 점령기에 생긴 유사종교가 50개를 넘었다. 따지고 보면 신도문제는 바로 천황의 문제였다. 신도가 세습으로 이어진 천황가의 만세일계(万世一系)의 근원이었을 뿐 아니라 천황을「아키추가미(現津神)」로 군림하게 하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도파괴에는 천황의 신격(神格)박탈 선행이 불가피했다. 맥아더의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었던 것인지 1946년 1월 1일 히로히토(裕仁:현 明仁의 부왕)천황이 칙어(勅語)를 내려 자기가 신(神)이 아닌 인간(人間)이라고 선언했다.「천황을 아키추가미(現津神)로 한 것은 일본국민이 다른 민족 보다 우월하여 세계를 지배하여야 하는 운명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가공의 관념」이라고 천황의 신격(神格)을 부인하며 자신은 신이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한번도 신(神)이 되어 본 일도 없는 인간(人間)이라고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천황은 칙어를 내리기 약 2개월 전인 45년 9월 27일 미국대사관으로 맥아더를 방문했다. 맥아더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군복차림으로 모닝코트에 실크헤드로 정장한 천황을 영접하여 자신이 옳은 쪽에 서서 허리에 손을 받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 인간으로 강등한 천황의 초췌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맥아더는 촬영이 끝나자 15분간 천황을 세워둔 채 연설을 했다. 그 날의 대화록은 지금까지도 비밀문서로 되어있다. 존건서의 저서 '맥아더의 수수께끼'에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했다면 틀림없이 정신병원에 갇혔거나 참수를 당했을 것이라고 천황이 맥아더에게 말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천황은 이 면담에서 자신이 기독교도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자진해서 밝혔다고 한다.

맥아더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 민주주의를 습득하게 되기를 바랐다. 기독교가 민주주의 뿌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었다. 맥아더 회견 이후 천황이 기독교로 기울어진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다. 천황이 가가와도요히코(賀川豊彦)목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기독교에관한 대화를 나누고 명치시대 기독교 지도자인 우에무라마사히사(植村正久)의 딸을 초빙하여 궁성 안에서 성경연구회를 계속시킨 것 등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다. 성경연구회에는 천황과 황후도 참석했다. 모두가 함께 찬송가를 불러 궁중 안이 기독교 분위기로 감싸였다고 한다. 그런 시간이 5년을 넘어 계속되었다.

맥아더의 꿈은 6·25 동란에 짓밟히고 말았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게 되자 익지도 않은 풋감 같은 일본이 원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행세하게 되었다. 일본이 민주주의를 배운 것은 패전 이후 5-6년밖에 되지 않는다. 1945년 패전까지는 무단정치와 군국주의 압제가 전부였다. 1951년 4월 맥아더가 해임되고 그 해 9월 일본의 독립이 인정되었다. 맥아더의 꿈을 박살낸 6·25 덕분이었다. 천황이 다시 신도(神道)의 중심에 올라서고 야수쿠니신사를 비롯한 모든 신사(神社)가 전쟁기를 능가하는 호황을 누리는 일본이 되었다.

(본회고문, KBS사장,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권장수 / 2월초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에 취임
- ◆ 권혁부 / 2월 1일자로 KBS 이사에 취임
- ◆ 김인규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로 3월부터 출강
- ◆ 박준규 / 아들 박종진 2월 26일 연세대학교 문학박사(사학)학위 취득
- ◆ 배재철 / 뇌졸증으로 2월 19일 원효병원에 입원 가료중
- ◆ 양휘부 / 고려대 석좌교수로 3월 부터 출강
- ◆ 정수웅 / 중국의 설풍경과 중국대운하 제작(계속사업)촬영차 2월 17일 출국
- ◆ 최창봉 / 교민회 초청으로 1월 24일부터 2주간 뉴질랜드 방문. 방문중 한인음악회 참관
- ◆ 홍성규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석좌교수로 3월 학기부터 출강

산수

- ◆ 김상헌 / 2월 21일

희수

- ◆ 임병윤 / 2월 12일
- ◆ 이상설 / 2월 17일

고희

- ◆ 김병기 / 2월 2일
- ◆ 한종근 / 2월 4일
- ◆ 진한석 / 2월 9일
- ◆ 김종래 / 2월 13일
- ◆ 류명근 / 2월 20일

자녀결혼

- ◆ 류근찬 / 아들(2/ 2)
- ◆ 구본출 / 아들(2/24)
- ◆ 홍범균 / 아들(3/ 1)
- ◆ 이만희 / 아들(3/11)
- ◆ 변정호 / 아들(3/11)
- ◆ 윤병달 / 아들 3월 17일 낮2시 강남문화센터1층
- ◆ 김형도 / 아들 3월 24일 낮1시 광고문화회관 디어컨벤션센터2층

부음

- ◆ 이홍범 / 모친상(2/ 3)
- ◆ 최강초 / 상 배(2/13)
- ◆ 허남길 / 참 척(2/22)

별세회우

김기천 회우가 2월 19일 뇌경색으로 별세 향년 70세. 고인은 1962년에 입사, KBS광주방송총국·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 국장으로 역임하고 1994년 KBS를 퇴직한후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국 국장을 끝으로 방송계를 떠났다. 유족은 미망인과 3남 1녀이다.

수고하셨습니다 3월말 KBS 퇴직자

- ●김흥섭 / 심의팀
- ●김윤한 /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 ●허 주 /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 ●윤성원 /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 ●류환기 / 편성본부 TV송출팀
- ●김정광 / 보도본부 국제팀
- ●신상용 / 프로그램전략기획팀
- ●류인창 / TV제작본부 중계영상팀
- ●안영준 / TV제작본부 TV편집기술팀
- ●김용훈 / 라디오생방기술팀
- ●한종훈 / 기술본부 제작인프라팀
- ●정순교 / 기술본부 관악신송신소
- ●오갑환 / 기술본부 소래송신소
- ●김종영 / 경영본부 총무팀
- ●한진호 / 경영본부 시설관리팀
- ●구정환 / 경영본부 시설관리팀
- ●이용수 / 경영본부 시설관리팀
- ●이인순 / 경영본부 재원관리팀
- ●최효섭 / 경영본부 경기북부사업소
- ●이종선 / 경영본부 관재팀
- ●조일제 /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 ●김한인 /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 ●김시동 /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팀
- ●이명호 / 대구방송총국 보도팀
- ●백성필 / 대구방송총국 기술팀
- ●김종식 / 목포방송국
- ●박영근 / 전주방송총국 총무팀
- ●안승만 / 전주방송총국 총무팀
- ●강한호 / 청주방송총국 기술팀
- ●이창수 / 강릉방송국
- ●고흥순 / 원주방송국

신입 회우 환영합니다

- • 노기환 /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28 한울빌라 401 (02-574-6596, 011-756-6596) roknorchid@hanmail.net
- • 문종철 / 156-850,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한성Ⓐ 104-1001 (02-842-0230, 011-720-5236) 한국HD방송주식회사 mon@kbs.co.kr
- • 한동수 / 463-8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타 211호 (031-788-7211, 011-390-0450) colorhans@hanmail.net 한국색채문화진흥재단 02-783-0005
- • 김기욱 / 122-902, 서울 은평구 역촌2동 71-1 현대화타운 901 (02-386-9914, 011-304-3233) kkwook@kbs.co.kr
- • 김무환 / 157-863, 서울 강서구 염창동 관음삼성Ⓐ 101-504 (02-2658-4874, 011-720-4872) 드라마, 쇼, 좌담무대제작
- • 남봉희 / 701-040, 대구 동구 검사동 907-13 (053-982-7177, 011-502-7175) hee@kbs.co.kr
- • 김영철 / 121-140, 서울 마포구 신정동 12-4 (02-337-0795, 011-9871-0795) kimychul@kbs.co.kr
- • 백종식 / 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82 동신Ⓐ 103-1307 (031-846-3259, 011-758-1241)
- • 박현기 / 156-031,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중앙하이츠Ⓐ 107-2503 (02-817-4327, 010-2267-4323) phg@kbs.co.kr
- • 한동화 / 137-064, 서울 서초구 방배4동 1344 현대1차Ⓐ 108-904 (02-591-6454, 011-255-3423) handonghwa@hanmail.net
- • 안경은 / 449-9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동일하이빌 208-902 (031-274-6974, 011-754-0917) ahngreen0917@hanmail.net
- • 채규화 / 573-200,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 400-3 (063-465-7736)
- • 오창현 / 590-989, 전북 남원시 향교동 451 (063-633-4638, 010-4643-4638)
- • 서일봉 / 560-2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745-1 현대에코르Ⓐ 105-204 (063-223-8247, 011-682-8247)
- • 안병율 / 136-087,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6(5/3) (02-922-8518, 011-9793-8518)
- • 홍갑준 / 151-020,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 302-1012 (02-873-6306, 011-720-6306) HGJ6306@hanmail.net 수정플라워 02-883-5488
- • 백일기 / 415-070, 경기 김포시 풍무동 월드메르디앙Ⓐ 316-1102 (031-988-0790, 011-758-0730) (주)디지털 미술센터 02-781-8713
- • 권혁태 / 150-04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현대5차 511-402 (02-2671-7926) (주)디지털 미술센터
- • 김신의 /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4-12 (02-781-8727) (주)디지털 미술센터
- • 김용한 / 158-055, 서울 양천구 목5동 549 금호Ⓐ 102-503 (02-2649-4667, 011-9095-7504) yhkim4521@hanmail.net
- • 김범배 / 157-018,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51-11 성환하이츠빌라301 (02-2698-3789)
- • 이만희 / 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 104-302 (02-831-9415, 011-9632-9415)

▶3면에 계속

편집위원 : 김성배(위원장), 길 주, 김선기, 박인채, 박춘병, 서정원, 오정탁, 윤기로, 이종문, 정선언, 한중광, 이수영(부산), 장영수(창원), 도문개(대구), 김정빈(광주), 김정숙(전주), 송정의(대전), 신영식(청주), 이운섭(춘천)

'07년총회 이모저모

사우회 2007년 정기총회는
단합의 모습을 보이면서 2시간여에 걸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총회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 : 이종문 편집위원)

▲ '07년 총회에는 회우 430여명이 참석, 회의장은 처음부터 참여의 열기로 가득 찼다.

▲ 서병주 8·9대 회장이 사회봉을 두드리며 마지막 회장 역할을 수행했다.

▲ 회장후보 조정 10인 위원회는 단상옆 회의실에서 조정안을 숙의.

▲ 이종봉 임시의장이 회장 후보 조정안을 발표하자 총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채택했다.

▲ 김은구 신임회장, 김수웅 차기회장, 이일로·이장춘 신임 감사가 등단, 총회 참석자들에게 인사.

▲ 김은구 신임회장과 김수웅 차기회장이 서로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다.

▲ 신임 회장이 "힘있는 사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인사를 짧막한 애드리브로 대신했다.

▲ 정연주 KBS사장은 회장취임을 축하하면서 "KBS에 대한 질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회장직을 떠나면서

서병주 / 8, 9대 회장

지난 2월 23일 총회장을 가득 메우 선후배 동료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회장의 짐을 덜게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재임기간동안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일은 저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앞장서 도와준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해마다 저는 "자주 만나자" 그리고 "서로 사귀고, 섬기며, 나누자"고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경운동 사무실에, 여의도 세미나실에 모여 담소하고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즐기면서 건강'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기는 가운데 1300여 회원들과 함께 4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우회가 'KBS'라는 '친정'을 되찾은 일입니다.

①본사에 사무실을 얻고 ②총회를 본사 공개홀에서 하고 ③작년에는 Home Coming Day란 이름의 본격적인 친정나들이가 이루어져 선후배간의 교류가 원활해 진 것은 기록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사우회가 앞으로도 '상부상조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로써의 전통'을 살려 크게 발전하며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취임사

김은구 / 신임 회장

KBS사우회 제10대 회장자리에 서게 해주신 회우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회장 선출 기간에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우회의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S사우회가 20년 세월을 쌓아오면서 친목단체로서의 기본틀은 잘 갖춰졌고 회원 1천명시대의 출발도 잘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온 역대 집행부와 선배 회원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KBS사우회는 더 발전하여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우리의 모습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회우 여러분,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를 냉정히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게 챙기고 뛰어야 할지 방법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실시한 <회우 의견 모으기>에서 말씀들 해주셨듯이 사우회 운영을 老·壯·靑의 균형을 잘 이뤄서 나름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한 목소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노·장·청의 두뇌를 동원한 강력한 <정책·사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집행부 기능과 함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있는 사우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축적한 방송, 기술, 경영, 보도의 힘을 한데 모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71세, 황해도 해주 출생 ■KBS 경력은 :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보도국 부국장(국장대우) ●대전방송국장 ●업무국장 ●사회교육 방송국장 ●보도본부 뉴스센터 주간 겸 보도본부 부본부장 ●부산방송본부장 ●방송개혁발전위원장 겸 인사관리실장 ●연수원 교수 ●기획조정실장 ●경영본부장 ●아트비전 사장 ●이사 ●사우회 부회장

▶2면에서 계속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 박영욱 / 153-034, 서울 금천구 시흥4동 4-142 (02-805-3952, 011-705-3952) juju1000@naver.com
- • 이원규 / 412-27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 516-1503 (031-965-5438, 010-4786-3240) 원음방송 사장겸 한방건강 TV 총괄사장 wonkyu1211@daum.net
- • 이준일 / 120-852,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8-68 (02-394-2133, 011-758-2132) 인테리어 cqlfg@dreamwiz.co.kr
- • 김선옥 / 158-053, 서울 양천구 목3동 롯데캐슬위너 105-505 (02-6737-6776) sunok4606@naver.com 라디오 인천방송 본부장 032-830-1910
- • 윤덕원 / 158-832,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19-13 (02-2699-9994, 011-757-9994)
- • 이재봉 /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037-10 (016-398-7204) ljh@kbs.co.kr
- • 박규상 / 158-07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5차 현대Ⓐ 502-1203 (010-6232-3354) najullo@kbs.co.kr
- • 김재철 / 157-033,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대림Ⓐ 108-1804 (011-9104-2107) jckimkbss@yahoo.co.kr
- • 이광구 / 151-880, 서울 관악구 신림3동 619-3 102호 (02-830-4165) ooo924@hanmail.net (주)디지털미술센터 02-781-8713
- • 황은수 / 122-900, 서울 은평구 역촌2동 53-19 B-015 (02-383-1819, 011-9942-1817) hwey0805@naver.com
- • 김형태 / 158-050, 서울 양천구 목동 905-22 트윈빌A코아 2403 (02-2654-0454, 011-9164-2030) kimht@kbs.co.kr 박근혜를 돕는 사람들-대외협력특보
- • 이문수 /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공Ⓐ 110-1503 (011-225-5218)
- • 한강수 / 130-06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12 한신Ⓐ 108-1503 (02-3295-5543, 016-686-5543) 우리팜제약 상임고문
- • 공정표 / 360-77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공Ⓐ 101-806 (011-493-4728) jpkong@kbs.co.kr
- • 윤공보 /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77-34
- • 오영윤 / 500-170, 광주 북구 운암동 140-11 중흥Ⓐ 105-1207 (062-512-9866, 011-604-9866)
- • 박영웅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0-7 현대트라움Ⓐ 403 (02-2052-6868, 011-754-6038) pywhero@hanmail.net 환경일보, 대한일보(인터넷신문)부사장 02-711-4040
- • 박광식 / 42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진달래마을 대우Ⓐ 2202-203 (032-226-8674, 011-720-8670)
- • 배진수 / 136-838, 서울 성북구 장위2동 238-369 (02-919-8940) jinsoo38@naver.com (주)성원실업 길음지점 관리소장 02-918-0542
- • 권혁부 / 137-813,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 83-302 (02-533-4482, 011-898-3045)
- • 박동영 / 157-220,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2 (02-2664-4730, 011-708-4010)
- • 박찬숙 / 140-85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101-3502 (02-784-5701, 011-9075-9993) 국회의원 02-788-2915
- • 이건수 /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7-26 두원빌라 101호 (02-521-2642, 011-9120-0230) kunsoolee@yahoo.cokr
- • 정건일 /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현대ESA 2차 A-2104 (02-3472-0653, 011-667-0653)